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미가서**

지도자의 부패

(미가 2:1-13)

원로목사 **이종윤**

라틴어로 '데오블렌데'라고 하는 말은 영어 약자로 DV로 표기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 놓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취하신다면 그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인생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을 뿐입니다.

1. 지도자의 죄

(1) 악한 계획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1절).

죄를 꾀한다는 것은 죄를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꾸미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승리자 같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3절).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항거하며 '그러나' 요나는 다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러나'로 요나에게 대응하시어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요나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2) 탐심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다"(2절).

탐심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심계명 가운데 열 번째 계명이 탐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골 3:5).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죄가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이라면 탐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제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외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그의 목에 멍에를 맨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4절).

하나님은 배교자들이 탐심을 품은 자들 보다 오히

려 낫다고 여기시어 땅을 나누어 그들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탐심의 죄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보다 더 무거운 것으로 취급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탐심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거짓예언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6절).

거짓 예언자들은 부자들을 즐겁게 하고 방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복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세상적 약속만을 외칩니다.

한국교회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예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들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는 자들을 짓누르는 거짓 예언자들로 인하여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2. 미가의 예언

"야곱 아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 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 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12절).

미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예언을 합니다. 12절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다 모으며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참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처소'는 그리스도의 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남은 자며,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앞에는 길을 여는 자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연 것과 같이, 스품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열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봉장이 되시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하나님의 목회> 에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엡 4:11-12)

2017 사명자 대회 발대식

오늘 찬양예배 시 / 10.8(주)~11.26(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 20(월) ~ 25(토) 새벽 5시-6시, 강사: 김성봉 목사

2017년 사명자대회 발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서울교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교회는 창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 라는 비

박노철 목사 재신임 부결되다 - 10월 정기 당회서 -

당회는 지난 10월 1일(주) 찬양예배 후 10월 정기 당회를 열고 박노철 목사 재신임의 건을 다루었다.

이는 박노철 목사가 총회 재판국의 위임목사직 부존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신임과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총회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음으로 향후 판결 결과를 대비하여 안식년 규정에 따른 재신임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함이었다.

이날 당회에서 박노철목사의 재신임이 부결되었다.

전을 갖고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 를 지향하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뜻을 세워 달려왔다.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 2017 사명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유·초등부 가을 성경학교 10월 22일(주) 오전 11시~오후 4시

유·초등부에서는 10월달에 가을성경학교를 10월 22일(주)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그동안 짧아진 유·초등부 시간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있었다. 서로 교체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 신청 안내

- 세례 교육 : 10.8(주일) 오후 1시
 - 세례 문답 : 10.8(주일) 오후 2시
 - 세례식 : 10.15(주일) 오후 찬양예배
- 세례, 유아세례, 개종,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 바랍니다.



2017 성경 암송대회

본선: 10월 14일(토) 오후 1시

2017년도 성경암송 대회 본선이 10월 14일(토) 오후 1시에 열린다.

- 대기 장소 : 602호
- 미취학 : 609호 / 취학 : 607호
- 일반 : 603호 / 영어암송 : 606호

찬양예배 오르가니스트 교체 및 예비 오르가니스트 임명

당회는 주일 찬양예배(베들레헴 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최수황 집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안호주 선생(우선 3개월 인턴자격)을 선임하고, 최수황 집사는 예비 오르가니스트로 임명하였다.



안호주 선생

-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악과 오르간전공 졸업 (Bachelor of Music)
- 영국왕립음악원 석사 오르간전공 장학 졸업. (Master of Arts)
- 독일 뤼베크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오르간전공 입학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 오르간 고음악전공 석사 입학
- 독일 뤼베크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오르간전공 졸업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 오르간 고음악전공 석사 졸업

예수의 비유

잃어버린 자

(눅 15:1~32)

원로목사 이종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대화하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알아야 했던 율법도, 그리고 예배 의식도 종교의 상식도 없는 무지한 사람들과 교제를 했다고 하는 이유였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주의자들 향하여 하시는 대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들, 땅 위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불행한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이다. 이 가운

데 세 번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탕자의 비유란 그 제목이 적절치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심정을 배워야 한다.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들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 을 잃어버린 것은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 드라크마를 가진 이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밤새워 찾았다는 것은 그것이 찾을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닐 것이다. 또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 아들을 없는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의 목자와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과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가출한 아들의 귀가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주인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노력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

인간을 분해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물량적으로 대단치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내려다 본 인간의 가치는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될 것이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무시한 자,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생각하시며 찢어시는 심정으로 우리의 귀향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선지자는 죄인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사 53:6).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열지 아니하시고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이 양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정로로 가게 하기 위하여, 또 잃어버린 자권(子權)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비참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셨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참 뜻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의 교사들이 깨달을 리가 없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는 인간을 찾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과 불쌍한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배신한 아들의 아들됨을 회복시키려고 계획하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를 맞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확증을 주셨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과 회개의 심정을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견게 하신다.



사명자대회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서준권 목사 (사명자대회 지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더, 다니엘에 등장하는 '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산'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훼파되었다는 소식을 접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곳, 그리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이루는 시작이 되었던 곳이 바로 수산이었고, 하만에 의해 몰살 당할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용기와 헌신을 힘입어, 금식하며 기도하여,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수산이었으며, 다니엘서 8장의 다니엘이 앞으로 진행될 역사와 세상 끝날에 대한 환상을 본 곳도 수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산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 '수산'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곳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

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2017 사명자 대회』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수산'과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바른 회복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예 전심, 전력할 때, 26년 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 우리에게 서울교회를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위기의 장막을 거두어 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동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은 절제하면서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사명자되게 하옵소서.
- ②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 교회로 재건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배부소서.
- ③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경외심과 진지한 부지런함 그리고 바른 인품과 지식을 가지고, 가르침과 권면, 경고, 치리, 용서를 하며, 우리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고, 신행일치의 삶의 본을 보임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목자를 보내 주옵소서.
- ④ 서울교회가 노회와 총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형제 교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 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이루어, 세계복음화에 머릿돌이 되게 하옵소서.
- ⑥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교회에 건강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 ⑦ 서울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서울교회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명자대회를 시작하며

서울교회 사명자 대회는

사명자대회의 유래는 서울교회 창립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총현교회를 나온 성도들 160여 명이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을 빌려 첫 예배를 드린 것이 1991년 10월 6일이였다. 이날 성도들은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10월6일을 기점으로 50일 후면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준비위는 오순절의 의미를 따서 추수 감사절을 교회창립일로 정하기로 하고, 7주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뜨겁게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매년 50일간 진행하고 있는 사명자대회의 모태가 된 것이다.

사명자대회는 초창기에 '비전2000운동'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주후 2000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고 있었다. 비전2000운동은1998년엔 군복음화운동인 비전2020 운동과 함께 전개되었다. 이때 명칭도 비전2020운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이듬해부

터 군선교를 위한 비전2020운동은 별도로 추진하고, 원래 비전2000운동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전도 및 기도 운동은 '사명자대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교회는 이기간에 다양한 기도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4시간연속기도회』였다. 정해진 기도실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공격적인 예배와 집회시간 외에는 24시간내내 기도가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지정된 시간에 기도실에 와서 태신자명단과 중보기도 요청카드를 보고 기도를 하며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명자대회는 기도와 함께 전도에 주력하는 대회인 만큼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을 일깨웠다. 올해는 교회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번 사명자대회에서는 별도의 전도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성도들은 각각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

태신자란 어머니 배속에 있는 아이처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로 하고 마음에 품은 대상을 말한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엔 각 부서와 교회학교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등부의 흠키 밍데이, 고등부의 친구초청잔치, 사랑부의 천사들의 음악회는 사명자대회 기간 때마다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7사명자 대회는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예매진하기로 한다. 현재 교회의 사안이 워낙 긴급한지라 무너진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재건하기 위해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되어 뜨겁게 기도하므로 무너진 서울교회 성벽을 재건해야한다.



미창조(주) 리안헤어 호산나대학 뷰티케어학과 물품 지원

지난 9월 20일 미창조(주) 리안헤어는 호산나대학 뷰티케어학과에 200만원 상당의 헤어관련 물품을 기부하였다.

리안헤어(유상준 대표)는 “뷰티케어학과 학생들이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리안 매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자재를 기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무중심의 수업이 진행될 바란다.”라고 전했다.

리안헤어는 2016년 호산나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뷰티케어학과 강의실을 기증하였고 리안 아카데미 교수진 파견과 아카데미 시설을 활용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호산나대학 취업자캠프 개최”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1박2일) 호산나대학에서 취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자캠프가 취업지원센터 주체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참가한 취업생 35명은(은천요양병원, 서초참요양병원, 서울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스타벅스, LGCNS, CGV, 경성문화사, 한일MEC 등에서 근무)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도 하루 휴가를 내어 모교를 방문하였다.

캠프는 후배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으로 레크레이션, 취업자보수교육, 바비큐파티 및 친교시간, 아침고요수목원 방문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대처 방법과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인정받기’란 주제로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인간관계(대인관계), 문제해결방법, 장기근속을 위한 실천 등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에 처음 참가한 이성우(8회 졸업, 은천요양병원 근무)군은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동기, 선·후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요양보호사가 되어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호산나대학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취업자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60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취업자모임, 캠프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2부예배 후, 504호)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자녀손(수험생, 유학, 군복무)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중·고등부 말씀 프로젝트 "도전! 성경골든벨"

10월 22일(주) 중·고등부 예배후

중·고등부에서 10월 22일(주) 학생들의 신앙과 성경 지식 향상을 위해 말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도전! 성경 골든벨』을 개최한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 열리며 범위는 베드로전서, 마가복음이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린다.

등정

■ 특녀: 9교구 류진웅 성도 박혜리 성도 (박희서 집사 김미자 권사 장녀 가정)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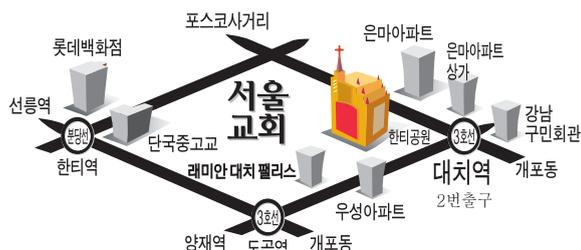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7 사명자대회(10월 8일-11월 26일)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2. 2017 성경암송대회(10월 14일)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서울교회 되도록
3.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짧은이 예배	오후 2시	본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당 II 층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